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예배 후에 8월 정기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오후집회 시간에는 교회학교가 여름행사를 보고합니다.

2013년 청파장학생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여 대상자들은 예배 후에 세미나실로 모이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통독이 9월 7일(토)과 14일(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7일에는 누가복음을, 14일에는 사도행전을 통독합니다.

찬양대에서 신입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대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교회학교 유치부와 아동부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학교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광 한인교회 연합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다녀옵니다.

집과 사무실에 있는 작은 생명들- 화분에 심겨진 식물, 반려동물 등 -을 잘 돌보십시오. 작은 것로부터 마음을 쓰는 일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렘 1:4~10 / 시 71:1~6
히 12:18~29 / 눅 13:10~17

시112
------

식 당 봉 사 : 이형숙 광혜자 권미숙 김수진 이미혜 이명희 최숙화 문홍일 다음 주 식당봉사 : 안홍숙 임영선 이증자 이수정 박경선 박정숙 구성실 최재욱 오늘설거지봉사 : 두란노2속 다음 주 설거지 : 이부곤 임선정 한기택 장혜정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새로운 날을 선물처럼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을바람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맞는 저녁 바람은 실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때마다 값진 선물을 베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주의 때를 따라 사는 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끝없이 전쟁을 반복하는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잔혹한 무기들 앞에서 무고한 생명들,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속절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김문주 김승현 김수진 김용진 박효선 김윤수 김재환 김진선  
 김준호 곽혜자 김필순 김혜권 박재임 김희진 박홍재 류준모 심호선  
 박석희 조항미 박영희 박옥순 이봉배 박용진 김용원 성지현 양상철  
 박재란 윤미경 윤정덕 구성실 이봉옥 이윤석 박안수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장원호 박성희 정완수 김재광 정한구 왕영순 정현모 조병주  
 조현권 박아영 최다미 최철수 곽권희 한인철 조윤숙 허호범 박성실  
 홍선희

### 감사헌금

강순배 김재흥 최희영 송희원 송채원 송우석 신민철 안경진 이경희  
 이병수 장승연 최진경 정현선 유병선 진종대 무명8

### 생일 감사

김경수

### 녹색꿈 헌금

김용진 박효선 윤수진 최다미 무명8

	장혜숙 노순옥 김재흥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우리들의 등

제 손에 닿지 않는 등이 있어  
 아들과 나는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것이다  
 아버지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것이  
 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아들에게도 제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위안이 되는 시간  
 손닿지 않는 그 먼 곳에  
 남이 읽어서는 안 될  
 무슨 운명이라도 적혀 있다는 듯이  
 한 글자씩 짚어가며 읽어줄  
 피붙이가 필요하다고  
 때밀이 수건을  
 등 뒤로 건네고 건네받는 것이다

제 손이 닿지 않는 등이 있어  
 아들과 나는  
 따뜻한 안개 속에 순한 짐승이 되어  
 서로에게 등을 맡기고 맡는 것이다

- 박현수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길이 아닌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십시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진리의 길에 서십시오. 주님과 함께 자유와 해방의 길을 열어 가십시오.

아멘.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며 그저 내달리기만 했던 지난 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세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자유와 해방의 길을 주님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수련회 보고	신앙의 요체 / 김기석 목사 기도 : 김근종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이범석 목사	공동기도 김재흥 목사	이혜수 선생 김경연 집사

8	영접위원	조병무 김훈동 박석희 유경순 조항미 이현순
	헌금위원	한상익 정경례

## 탈원전의 길

지난 8월 6일은 68년 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날입니다. 이 원폭으로 7만여 명이 즉사했고, 후유증으로 2만여 명이 더 사망했습니다. 사흘 후인 8월 9일,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8만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후 67년이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4기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히로시마 원폭의 전배가 넘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로 녹아버린 핵연료는 반응로를 뚫고 아직도 지하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를 식히기 위해 물을 쏟아 붓고 있으며 회수된 오염수를 태평양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향후 몇 십년간 계속 방사능 오염수 방기가 일어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과학과 지혜를 총동원해도 원전사고의 뒤흔치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체르노빌의 7배 규모로 평가되며 일본 전역이 오염된 상태이고, 세습의 반감기를 고려해도 300년이 지나야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437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도 68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23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4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 5위의 원전보유국이고 국토면적에 비교한 원전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세계3대 핵재앙으로 불리는 미국의 쓰리마일 원전사고,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가장 핵발전소가 많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전건설이 많은 국가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세계 442개의 원전 중 6개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런 확률로 미루어 보면 한국에서의 사고발생 확률은 27%에 이릅니다. 핵사고가 나면 한국은 300년 동안 방사능 오염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핵발전소의 세계적 수요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30년간 단 한 개도 신설하지 않았고 유럽은 적극적으로 원전설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미 안전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선진국들이 손을 떼고 있는 사양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유독 아시아 몇 개국은 오히려 원전 설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한국, 중국, 인도입니다.

대표적 탈원전 선언국인 독일은 2년 전 17기의 원전을 2022년까지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부족분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가스 등 화석연료,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에너지 절감으로 보완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2위의 원전보유국인 프랑스에 전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원전 지지론자들은 아직도 앵무새 같이 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보다 원전이 생산하는 에너지 단가가 훨씬 싸다고 주장하면서 고에너지 의존적 산업구조의 개선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눈앞의 이익과 원전관련 수혜자들의 이익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재료가 필요 없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등은 가파른 원가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원전의 원가 우위는 조만간 뒤집힐 것입니다. 원전사고나 원전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장 건설의 막대한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전설비의 비용과 단가는 결코 경제적이지 않은 것이며 원전의 건설로 인한 위험과 엄청난 후속비용을 우리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원전사고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탈핵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 사용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7배에 달합니다. 사용에너지를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원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불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청파교회에서 열렸던 “후쿠시마 아이들을 위한 한일평화콘서트”를 기억합니다. 재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들의 사진.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하는 음악가들의 가슴 울리는 노래. 그 순한 소리들을 마냥 헛되게 해서 안 될 일입니다.

원전사고는 한번 터지면 다시 께매고 봉합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의 위험성을 알고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걸음을 함께해야 하겠습니다.